지구촌의 절대확신

(행9:1~9)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구촌의 절대 확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지구촌 70억이 갖고 있는 절대 확신, 그게 오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과자를 하나 사서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를 하나 골라 자리 잡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과자를 먹으려고 둘러보니까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한 군데 할아버지가 한쪽에 앉아 계신 벤치가 보여서, 다른 쪽 빈구석에 가서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음악 들으며 과자를 먹다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자꾸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웃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싱글싱글 자기를 쳐다보고 웃는 것도 기분이 이상한데, 게다가 자기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자를 집어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자기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엔 노인이 그러시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끝까지 과자를 집어 먹는 겁니다.
그래 이 아가씨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과자봉지를 손으로 잡아채고는, 자리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가방을 여는데 보니까, 자기 과자가 가방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는 할아버지 과자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과자를 아무소리도 안 하고 아가씨가 집어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보았다가, 정말 어린 손녀 같은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펼쳐 놓은 과자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먹으니까 하도 희한하고 귀여워서 웃고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과자를 먹으면서 뻔뻔스럽게 웃고 있었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확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과장봉지를 들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때, 이 아가씨 마음속에는, 이 할아버지가 내 과자를 먹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이에요, Fact에요.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과자는 그대로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지요.

여러분, 영국이 민주주의에 본산 아닙니까?
그 영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고, 그리고 영국의 그 여론을 앞서서 선도하는 양대 일간지가 있습니다.
The Times가 있고 가디언이 있어요.
The Times와 가디언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The Times는 뭐라 그러냐 하면, '신의 소리' 혹은 '천둥소리'라고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Guardian은 '양심의 소리'라는 별명을 붙여 부릅니다.
그만큼 이 양대 신문사의 뉴스 보도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소리'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신문사가 The Times는 200년이 넘고, Guardian도 20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Guardian에 전설적인 편집장이 있습니다. 주필 겸 편집장이.
찰스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내건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뭐냐 하면, '주석은 자유롭지만…' 주석이라는 게 뭡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주석은 자유롭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신문이 신문답게 되려면 뉴스가 좋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뉴스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을 신성시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을 신성시해서 그대로 사실을 잘 보도하면, 그 보도 된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의견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형성 되어서 그것이 대의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십대 일간지 중에 하나에요, The Times와 Guardian이라고 하는 이 신문이.
찰스 스콧, 전설적인 사람이고, 존 케인즈나 아놀드 토인비 같은 석학들이, 이 찰스 스콧의 의견에 가담해서 학문 활동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실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Guardian이나 The Times의 기자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들을 신문에 옮겨 놨을 때,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일까요?
과연 인간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Times가 신의 소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Guardian이 양심의 소리라는 별명을 획득하게 되었지마는 이것이 신문의 한계이고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사실이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이 과자봉지 든 아가씨가 사실이라고 파악한 게 오류인 것처럼, 한 집단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한 나라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지구촌 70억이 오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오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류의 가장 획기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육체의 손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그 세상 안에서 중요한 일,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구촌의 삶 전체가, 모든 뉴스와 TV의 보도가, 이런 모든 게 다 오류 속에 있다고 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때, 아주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도를 탄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되는 공문을 받고, 공문을 손에 쥐고 다메섹으로 가서, 당시 다메섹에 몇 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멸절하려고 가는 중에,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대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위협, 살기,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등하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뜻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얘기이며, 동시에 호흡한다는 단어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화가 나면 막 귀에서도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을 등등하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에 대해,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져 하고 화가 나는지, 그 호흡 속에서 살기가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살기가.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뚜껑이, 젊은 사람들 말대로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고 분기가 탱천하다는 이 상황이 알려 주는 바가 뭡니까?

확신이에요, 절대 확신, 사울의 절대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신의 소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에게 들려주신 신의 소리.
무엇이? 기독교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스테반을 앞장서서 돌로 치게끔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스테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신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The Times의 별명이 신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하나님을 신봉하는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Guardian이라고 하는 신문이 획득하게 된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처럼, 양심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사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 아가씨가 과자봉지가 자기 과자봉지라고 확신했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임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옳은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빛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 26장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모든 내용을 볼 때, 빛이 비추인 것이 정오입니다, 12시에요.
중동 땅에서 12시, 가장 햇빛이 강렬할 때입니다.
근데 그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큰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췄다고 얘기해요.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그 빛이에요.
이 세상사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렇게는 하얗게 빨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볼 때의 그 빛입니다, 천국의 빛인 거예요
태양 빛을 어두운 빛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빛, 천국 빛이라는 겁니다.
천국 빛이 비취면서 천국의 세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나라, 그 나라 안으로 이 사울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들어 왔을 때 장님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본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국의 빛이 있는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천국의 빛이 비취는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자기가 장님입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사실을 파악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빛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틀린 거였다 이겁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 벌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뭔지를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기 전에 먼저 돈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사도 바울과 공원에 과자 사들고 들어간 이 아가씨의 확신, 그리고 The Times가 신의 소리라 그러고, 천둥의 소리라 그러고, Guardian이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구촌 안에 있는 절대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갖고 있는 눈과 귀와 촉감에 근거된 사실 파악과 그 사실에 근거 된 판단, 이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빛 아래서 볼 때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님인 거예요.
천국 빛이 내 눈에 비칠 때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없는 한, 천국 빛 아래서 사물을 볼 수 없는 한, 다 장님인 거예요, 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야만 속이 풀렸던 그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을 움직였던 그 확신.
스테반이 죽을 때도,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확신이 틀려도 그렇게 틀릴 수 없는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돈 벌어야 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스테반을 죽이는 잘못된 확신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이 확신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옳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 어떡할래요.
자식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도 옳다고 여기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살고 있는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 돼서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이 밝혀질 땐 어떡하실래요.
나라 사랑? 김구 선생님이 외쳤던 나라사랑이라는 그 말이 실제로는 우상숭배였다고 판명이 되면 어떡할래요.
찰스 스콧이 말한 '주석은 자유롭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그 사실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파악한 사실인 한에는, 근본적으로 잘못 파악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1831년인가부터 창간된 Guardian의 모든 기사가 다 거짓이었다면 어떡하실래요? 이 주필과 편집인들의 판단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모~든 판단들이 김 정은에 대해서 어떻고 저러고 말하고, 이북과 일본과 미국, 이 모~든 판단들이 다 거짓이라면.

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그냥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울 시절에 했던 이러한 잘못된 절대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 빛 안으로 들어가서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눈을 뜹니까?
천국 빛 안에서도 장님이 아니고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내 눈으로 내 귀로 파악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사실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 빛 안에서 그 사건과 그 사물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건이고, 어떤 사물인지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잖아요? 내 눈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 귀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 촉감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촉감과 그 눈과 그 귀로 파악한 모든 사실에 오류가 스며들어가 있고, 오류가 스며들어가 있는 사실 파악 위에 근거 된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오류라는 거

예요, 무조건 다 오류입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눈 앞에서 보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 귀에 들이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오류 속으로 빠져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갖는 절대 확신은 다 절대오류입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지구촌의 절대 확신이 절대오류 위에 근거 되어 있는데, 지구촌의 절대 확신을 절대오류로 만드는 함정으로부터, 그래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빛이 비취는 세계 안에서 돈을 볼 때 그 돈이 무엇인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걸 천국의 빛에서 보니까,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꺼내어서 어디다가 쓰는 것이지요.

지구촌의 절대 확신.
눈과 귀와 우리의 촉감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신문들이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 앞에서 눈을 감는 겁니다.
TV 뉴스 앞에서 귀를 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 때, 천국의 빛 아래서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사건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견을 듣고 알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삶이 정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절대 확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천국의 빛이 비취

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100% 절대 오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요구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천국 빛이 비취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